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하여

기획취재 전선협과 태평양노조비대위의 투쟁현장을 찾아

동력이 없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고립된 상황. 선상에서 선장의 말은 곧 법이고, 선원들은 상급선원의 노예일 따름이다. 빈번한 구타와 욕설, 휴일도, 명절도 없이 하루 18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들 선원들에게 '인권'이란 말은 단어조차 생소하다.

현대판 노예선이라는 무동력선을 타고 바다에 떠다니면서 죽음의 그림자와 공생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원들의 생활을 그린 영화'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가 오는 26일부터 한양대 대강당에서 상영된다. 전국선원피해자협의회(이하 전선협)와 태평양화학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태평양노조 비대위)주최로 상영되는 이 영화 시사회는 목록하게 선원과 노조가 결합하고 있다. 이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삶의 바탕마저도 인정되지 않는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억압과 탄압의 사슬을 끊기 위한 투쟁의 연대라고 한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던 홍기선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작품은 10월초 일반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며, 이번 시사회는 위의 두단체가 선원인권 쟁취와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가급 마련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 시사회이다.

영화 '가슴에 돋는…'는 유지에서 민주화의 태풍이 불어닥친 87년, 바다에서 폭구태풍이 불어 83명의 인원을 앗아간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모순된 사회구조가 낳은 선원들의 소외되고 버림받은 삶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당시 욕지에서 벌어진 민주화의 허구성, 노동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등을 이 작품은 조시하고 있다.

인 선상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포의 압터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법적인 보장도 없이.

이러한 선원인권의 보장을 위해 결성된 단체가 전선협이다.

전선협은 지난해, 오징어배를 탔던 환경연씨등 선원 7명이 인권침사와 선상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선원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선상폭력의 근절, 임종사·의문사의 근절, 노동인권의 보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단체 결성의 목적이다. 이들은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와 의문의 죽음을 개인적 보상차원이 아닌 사회적 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노

▲ 영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의 한장면

▶노동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태평양 노조

그리고 천자본가적 성향을 지닌 노동간부들로 어용노조가 결성되어 비대위의 외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현장노동자로 조직된 후원회가 결성되어 자금등의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나, 후원회의 노동자마저 회사측은 해고시켜 버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후원회는 해고자들의 후원보다 민주노조를 위한 지체 활동력 강화에 더욱 주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태평양노조 비대위는 현장 노동자들의 표면적인 무관심, 정권과 자본의 교묘한 탄압, 그림에 의해 부추겨진 어용노조와의 노·노갈등, 관제언론의 그의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수배중인 전 태평양 노조 기획국장 윤명선씨는 자신들의 기나긴 투쟁에 대해 "월급한푼 받지 못한 채 퇴직금마저도 빼앗기고, 배고픔과 설움을 딛고 회생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장 큰 문제는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들의 대오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노동자의 인권회복과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어려운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두 단체는 닥치는 현안문제중 자금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번 '가슴에 돋는…'의 시사회를 기획하였으나 이를 단순한 영화상영보다는 '투쟁하는 단체의 투쟁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우리의 농성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은 힘들고,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노동해방이나, 인간해방이나 이런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노동하는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은 반드시 올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신념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투쟁함 뿐입니다"

윤명선씨의 힘있는 목소리다.

〈이수정 記者〉

전선협 근로기준법 적용과 선원법 개정 요구

태평양노조비대위 탄압속에 5백여일 장기농성 벌여

영화의 주무대가 되는 선상생활은 현실속에서, 보다 가혹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격리된 채 선원들을 고기잡이 노예로 전락시킨 무동력선은 그래서 흔히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조건때문에 대다수 선원들도 무동력선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한때 인신매매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노동력을 조달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밧줄에 감겨 죽은 사람, 바다에 빠져 갈기갈기 찢겨 죽은 사람, 탈출을 시도하다 조류에 휩쓸려 죽은 사람이 한해에 2,3명, 연간 800여명이나 된다. 이들은 살인적인 구타와 망망한 바다한 문제로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오는 23일로 결성 3주년을 맞이하는 전선협의 노력은 초창기에는 사회적 냉대속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무관심과 묵을 죄어오는 생활고 속에서도 전선협 회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선상의 폭력을 알려내고 이를 사회문제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로 1년만에 국회에서 선원법 개정 시안서를 상정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 전선협의 활동은 선원들의 인권문제에 커다란 화을 그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선협은 적은 인원과 생활고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주의 경직한 해상생활의 협탁전회도 계속되고 있는 실에선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바꾸기 위해 전선협은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영화 '가슴에 돋는…'를 공동주최하는 태평양노조 비대위는 오는 26일로 농성 5백일째.

현재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노동사목회관에서 농성중인 태평양노조 비대위는 태평양노조 해고자 11명으로 구성,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해 5월13일 임금인상과 직장민주화를 요구하며 태평양노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그후 정권과 결권력투입, 태평양노조 조합원 4백17명의 연행, 30명의 해고, 7명의 구속 등 극심한 탄압속에서 민주노조는 와해되었다.

선거장대 노릇할 '국민의 눈'

특집—선감연의 대선보도 감시 운동

상설기구 '언론감시연대회의' 계획
모니터·심포지움 등 감시 활동 활발

지난달 28일, 방송3사는 스포츠 형사를 방영함다는 이유를 들어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장영심 민자당 총재 취임식을 보도했다.

역지로 짜맞춰진 이날 보도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의 언론이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나를 여실히 보여준 웃지못할 장면이었다.

이른바 편파·왜곡·불공정 보도로 놀들여진 우리언론의 한 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선거보도감시 연대회의(의장 정동익, 이하 선감연)는 선거기간 중 이러한 파행보도를 막고 객관적·가치중립적 보도를 이끌어 내기위해 지난 2월 20일 구상된 언론감시 단체이다.

선감연은 지난 1대대 총선기간 중 모니터 활동, 감시전화 개설, 시청자 여론조사 등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여러 사업을 벌여 언론계 안팎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탄생적으로 나타난 언론의 편파보도를 국민의 눈을 통해 비판하는 언론감시단체가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선감연은 지난 4월 '언론의 불공정 보도를 국민들 스스로 감시하여 공정한 선거보도를 이뤄내자'는 표어 아래 '대통령선거 보도감시운동을 위한 출범식'을 민주언론 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날 출범식 선언문을 통해 선감연은 '후보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후보의 탄탁보다는 다수 국민의 민생민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보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힘쓸 것을 결의했다.

올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맞춰 다시금 심각하게 대두된 언론의 특정후보 편파보도와 진실을 은폐한 왜곡보도 속에서 활동제개를 선언한 선감연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대책위원회,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언론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김규동(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김용태(기독교 아시아연구원장), 김중배(한겨레신문 이사), 이기형(시인), 이영희(한양대 교수), 조화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의 언론학자 및 언론민주화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도 팔계 참여하여 공정보도의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감연은 대선보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스신문·방송 모니터활동 스소식지 및 홍보지 발간 스불공정보도 언론사 항의 방문 및 해탄매체의 구독·시청 거부운동 스선거후 심포지움 개최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언론의 불공정·편파보도의 내용과 파행적 언론현실을 국민대중에게 알린것다는 목적으로 '참언론 한마당'을 오는 10월 24,25일 양일간 연세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선거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언론은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치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현실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뒤로 한채 집권세력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종순(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선감연 운영위원장은 그 원인을 한국언론구조의 문제점에서 찾는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법·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언론이 권력기관에 구속되게끔 하도록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선후에도 선감연은 상시적 언론감시를 위한 '언론감시연대회의(가칭)'를 구성하여 관련회원여가는 언론을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언론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성모 記者〉

데스크칼럼

송보영 〈본보 특집부장〉

단체장 선거연기 정치불신 조장해

정치 회색인이 겪는 왜곡된 정치

최근 한 잡지에 흥미를 끄는 기사가 실린적이 있다. '지난 5공정문화가 오히려 한국정치발전을 역행시켰다'고 주장하는 다소 이색적인 석사학위의 논문을 소개한 글이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13대 총선에서 이른 여소야대 국회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내용이었지만 5공의 실세들을 증인석에 앉히고 '광주민주화항쟁', '정치헌금' 등 5공의 비리를 추궁했던 정문회는 무리나라 정치사에 실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석사논문의 필자는 그 이면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정문회가 우리 정치사에 남긴 흔적은 크지만 비리의 배후와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지 못하고 정치판은 '원래 그런곳'이라는 정치권부주의에 빠져들게 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5공에 대해 6공이 면죄부를 발부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얼마나 뿌리깊게 되고 왜곡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이다.

정치무관심과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지난 지방의회 선거와 14대총선에서 나타난 저조한 투표율과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커다란 시회문제가 되어왔다. 그러한 정치무관심을 촉발시키는 요인도 단지 정문회만은 아닐 것이다. '국회에서 30조만의 날치기', '수서·정보사부지등의 의혹사건', '인기투표 선거개입',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와 더불어 언론의 의도적 왜곡보도 정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는 보도태도까지 사실을 추궁해 나갈때마다 의혹만 부풀어 가고 정치개혁에 대한 비평은 평상시나 선거때에도 결국 '희망사항'에 그쳐버리고 말았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갖는 위기의식과 염증은 계속 쌓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정치현실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이있는 사건이 있다. 단체장 선거연기와 맞물려 지난 6월13일 현직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임종인 변호사는 국민의 대표가 정한 단체장 선거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법과 관계하는 변호사로서 가치관과 인생관까지 흔들리는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그로인해 겪은 피로감으로 폭음을 하게 되었고 그 정신적 혼란, 음주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한번의 희화적인 사건으로 넘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크다. 대통령이 쉽게 어긴 믿이 가깝게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외면을 조장하고 멀게는 사회정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법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거연기는 '통치권의'이므로 관장여부의 심적이 아니라며 위원 관장여부를 자립피일 미루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이나 민주주의나라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결국, 선거패면 들만 모여도 정치이야기로 격론이 붙고 심지어 욕설과 함께 싸움마저 일어나는, 가히 정치파일(?)이라 할 수 있는 현상도 기형적인 정치구조가 낳은 모습이다. 그러한, 정치적 열성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거나 강건너 정치판의 이야기로 외면하는 모습은 부패한 정치가 낳은 현상이다. 혹시 정치에는 으레히 검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집권당은 언젠가 과권에 의해 도움을 받는 기득권을 갖게 되는것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씻물이 맑아야 한다는 고전명제는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황면을 흘려 듣을 수는 없다. 법이 무시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도 이미 도덕성을 잃은 정권은 설랑이 없게 될것이다.

최근 한군수의 양심선언에 대한 정권의 태도와 서둘러 그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경찰의 모습은 '정치는 필요악'이라는 말을 되뇌게 한다. 이번에도 단체장 선거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차기대선에 누가 승리를 한들 또다시 정치발전에 도모를 기대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정권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할 것이가는 지평하다. 더이상 국민을 정치회색인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원장 Level로 구성된 7명 정원제
●원장한 학사관리
●T.E.S.L.(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담당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 1-3, 토 1-4에시간
PAGODA LANGUAGE SCHOOL
종로-2가 탑골공원-옆 274-4000
강남 삼구동역 동보빌딩 515-4020

종로2가 탑골공원 전화영어시사 734-2442
TOEFL 600
오전반 : 9:40—12:40
저녁반 : 6:40— 9:40
G R E 2000
오후반 : 2:00—4:00
GMAT 700
저녁반 : 7:00—9:00
M.A ENGLISH
대학원 진학종합반
저녁반 : 6:30—9:30
통역대학원입시반
새벽반 : 6:50—8:30
저녁반 : 5:00—8:00

柳 津 監修
酒井善孝 編著
宋水鎬 譯著
英文法演習 1200題
英文作文 英文解釋演習 1200題
190P.up 7,400원 200P.up 8,600원
本書의 內容
SIX PART
百萬社 서울 종로6가 267

先物 및 옵션去來 實務敎育 案內
社團法人 先物去來協議會 附設 '先物研修院'에서는 國內 先物去來所 設立時 소요될 다수의 專門人力 養成을 目的으로 아래와 같이 第11, 12期 先物 및 옵션去來 實務 專門課程을 實施합니다. 美國內에 先物去來仲介人(Associated Person)資格試驗(Series Ⅱ)에 應試 準備를 하는 분도 本 課程을 受講할 수 있습니다.
● 敎育期間
• 제11기 1992.9.30 ~ 11.5(6주 총36시간)주2회 매주 수,목(19:00~22:00)
• 제12기 1992.10.5 ~ 11.10(6주 총36시간)주2회 매주 월,화(19:00~22:00)
● 敎育人員 : 선착순 45명
● 敎育場所 : 선물연수원(지하철2,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3분거리)
● 敎育費 : 대학생20만원
일반인40만원
(교재비10만원포함)
● 申請方法 : 선물거래협의회 사무국에 전화(534-8462/3)로 신청 바라며 교육비는 외환은행 구좌(구좌번호:137-13-02161-4,예금주:선물거래협의회)로 입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社團法人 先物去來協議會 附設
先物研修院
FUTURES ACADEMY OF KOREA
TEL. 534-8462/3 FAX 534-7994

창립 10주년 기념 1,200만원 고료 제5회 전국대학(원)생 현상논문 공모
한미은행이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200만원 고료 현상논문을 공모합니다.
1983년 3월 16일 우리나라 금융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설립된 저희 한미은행은 내실있는 미래의 은행으로 그동안 각종 학술, 문화, 예술, 장학사업에 꾸준히는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현상논문공모는 상이탑에서 연마한 학문적 이론을 현실문제와 접목시켜 참신한 주장과 논리를 겸비함이 발표할 수 있는 산학협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문적 열의에 불타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논 제(가,나,다중 택일)
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나. 자유경쟁시대의 은행경영 전략
다. 국제환경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 주어진 논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 작성하여도 무방함.
■응모요령
○자 격 : 응모마감일(1993. 1. 11) 현재 전국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응모마감 : 1993. 1. 11(당일자 소인분 유효)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10매 내외의 요약문 첨부)
WORD PROCESSOR로 작성시 A4용지 20-25매 (5매 내외의 요약문 첨부)
○당선자발표 : 개별통보 및 신문공고
○심 사 : 위촉받는 중견교수 (당선자 발표시 함께 발표)
○제 출 처 : 우편번호 110-1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한미빌딩)
(주) 한미은행 경합기획부 조사담당자 앞
■유의사항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제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 것.
○응모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자의 저작권은 당행 소유임.
○학교별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치 말 것.
○기타 사항한 내용은 공평기획부 조사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전화 : 733-7731 — 8062, 8063)
■심査 및 시상
○최우수작 (1편) — 300만원과 상패
○우 수 작 (2편) — 각 150만원과 상패
○가 작 (3편) — 각 100만원과 상패
○입 선 (6편) — 각 50만원과 상패
● 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시상장소는 상소는 수주 개별 통보
■특 전
최우수작 및 우수작으로 당선된 학생이 졸업후 당행입행을 위한 경우 특면한 간부사원가 없는 한 입행에 특혜를 부여함 (필기시험 면제).
창신한 시중은행
한미은행
대표전화 : (02) 731-8114